



2020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제주의 水修秀

11 No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드림타워 브로셔 배포				양양천열사 20주기 추모제		소방의 날		[훼손오를 모니터링] 새별오름		전태일열사 추모일	"머제와 술길, 같이 걸을래?"	생태안내자 현장교육: 하수면	이사회	순국선열의 날	대홍스님과 함께하는 자전정선	대홍스님과 함께하는 자전정선					[훼손오를 모니터링] 용눈이오름	여성폭력 추방의 날					

12 De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최종보고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이사회				이주인의 날			농시					성탄절						

교육의 주춧돌인가, 걸림돌인가.

- 학생인권조례 논란으로 바라본 교육의원제도 -

제주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청원서는 올해 3월 도의회에 제출되었고, 6월 발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보편적인 학생인권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생 531명을 비롯해 1,002명이 서명한 조례안. 그러나 아직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려면, 해당 조례는 상임위원 교육위원회가 조례를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어야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의 상임위 상정을 한 차례 미뤘고, 심지어 교육감과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며, 9월엔 심의를 보류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표류의 이면에는 강시백 교육위원과 강중룡 의원에 의해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대 청원의 이유를 '이미 제정된 다른 지역에서 조례제정 후 학업성적 저하, 청소년 폭력 증가, 교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라 밝히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모든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내용으로, 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심각성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반(反)인권적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교육의원인 강시백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보다도 억압된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의원이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억압함은 물론, 교육자치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는 5명의 교육위원과 4명의 일반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강시백 교육위원이 반인권적인 청원을 소개하였으니,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의원제도, 이래도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교육의 자치와 전문성은 어디가고, 반인권을 보수로 위장하며, 학생들을 단지 '교사의 권위에 따라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교육의원. 이러한 존재가 교육의원이라면, 제주에 교육의원제도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10월 7일 제주시청과 대학가에 게재된 대자보.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여러분의 지지로 구해달라"는 고교생들의 호소와 학교 인권의 열악한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오름의 신음.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오름을 찾는 탐방객이 급한 곡선을 그리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7년을 버틴다면 탐방매트가 1년도 되지 않아 닳아서 군데군데 구멍이 나고 있고, 구멍 난 탐방매트 사이로 연약한 송이층(스코리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별오름의 시간당 탐방객수는 620명이었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5,000명 정도의 탐방객이 찾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별오름의 탐방객 수가 올해 시간당 100명 수준에서 갑자기 600명으로 뛰어오른 것은 새별오름 억새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사진을 찍으려는 탐방객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새별오름을 찾는 너무 많은 탐방객수로 인해, 자연과 만나는 여유도 오름을 아끼는 마음도 잃어버린 채, 사람을 피해 더 깊은 억새꽃 사이로 들어가서 사진 찍기에 급급합니다. 이 때문에 탐방로를 벗어나 훼손이 깊게 더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탐방객들에게 훼손을 막기 위한 어떠한 홍보나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사이 방송에 제주의 오름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오름을 찾는 탐방객들의 SNS를 통하여 다시 알려지면서 오름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실내보다는 야외가 안전하다는 인식에 더욱 오름에 탐방 인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휴식년제는 다른 오름에 탐방을 집중시킬 수 있고, 많은 수의 오름을 휴식년으로 지정할 수 없는 점, 휴식년 해제 후에 억눌렸던 탐방 욕구가 쏟아지며 급격히 다시 훼손되는 현상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름의 탐방 특성을 분석하고, 분산시키면서 적절한 인원의 탐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탐방객이 몰리면서 오름 훼손뿐만 아니라, 탐방객들의 탐방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름 훼손과 더불어 탐방 만족도도 떨어진다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활동 이모저모

9월

- 9월 2일 [성명] 제주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즉각 상정하라!
- 9월 7일 [공개질의]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확대 관련
- 9월 8일 제주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상정하라!
- 9월 18일 [훼손오염 모니터링] 새별오름
- 9월 22일 [훼손오염 모니터링] 용눈이오름
- 9월 25일 [성명]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 부결하라!
- 9월 29일 제2공항 추석맞이 공항 피케팅
[논평] 교육의원 헌법소원 판결 관련

10월

- 10월 5일 [드림타워 대응] 국민연금공단 사행산업 투자에 대한 감사 및 자료 요청(김성주 국회의원실)
- 10월 6일 9차/10차 정기 이사회 진행
- 10월 8일 [제2공항 대응]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피케팅
- 10월 10일 '머체왓 숲길 걷기, 같이 걸을래?' 시민참여사업 진행
- 10월 11일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용천수팀 현장교육
- 10월 13일 [훼손오염 모니터링] 새별오름
- 10월 14일 [제2공항 대응]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피케팅
- 10월 18일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지하수팀 현장교육
- 10월 19일 영리병원 취소 촉구 법원 앞 피켓팅
- 10월 20일 [제2공항 대응]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피케팅
- 10월 21일 [제2공항 대응]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피케팅
[공개질의] 드림타워 하수처리 관련 민원 조치계획 관련 (상하수도본부)
- 10월 26일 [제2공항 대응]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피케팅
- 10월 27일 [훼손오염 모니터링] 용눈이오름
- 10월 28일 [드림타워 대응] 브레이크더드림 회의
- 10월 29일 [제2공항 대응]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피케팅
- 10월 30일 [제2공항 대응]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피케팅

영리병원 개원허가 취소 적법 판결(10/20)



제주도의 개원허가 취소로 끝난 줄만 알았던 영리병원 문제가 사업자인 복지측의 소송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10월 20일은 1심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는데, 그 전날까지 영리병원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단체들은 기자회견은 물론, 법원 앞 1인시위를 이어가며, 공공의료 강화와 영리병원 저지운동을 이어왔습니다. 복지측의 주장에 법원은 다행히 기각 처분을 내렸지만, 복지측이 항소한 상황. 영리병원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한 법 개정 좋아요, 영리병원 싫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공의료 확충이니까요.

[기자회견] 제2공항, 이제 도민이 선택할 시간(10/21)



기존 공항의 개선으로 국토부가 예측한 항공수요를 충족한다면, 굳이 공항 하나를 더 지을 필요가 있는 걸까요? 기존공항 개선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관제탑 등 기존공항의 안전문제에 1도 관심 없던 국토부는 이제와서 공항의 안전을 운운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한 채, 기존공항 개선은 안 된다는 국토부. 더 이상 국토부의 도민 기만과 정보의 은폐·왜곡은 필요없습니다. 이제 도민이 결정할 시간입니다. 도의회의 현명한 의견수렴방안 마련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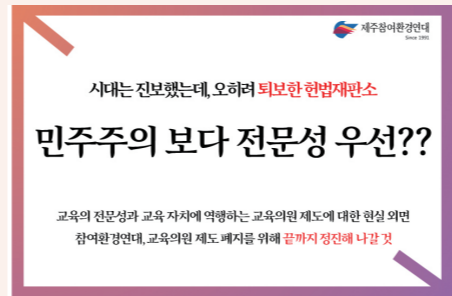
[국정감사] 드림타워 카지노에 투자하는 국민연금?(10/5)

국민연금도 카지노 잭팟에 눈이 먼 걸까요? 국내 최대 카지노 사업을 추진중인 드림타워 사업자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우리단체는 전국 참여자치지역운동 연대 단체들과 공개질의 활동 등을 이어갔는데, 10



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투명한 국민연금의 자료공개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선 도박·담배 등 죄악주 투자 확대와 석탄 등 기후위기에 반하는 반사회적 투자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드림타워 카지노 투자를 철회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교육의원 자격제한 위헌 청구 기각(9/29)



변하는 시대, 헌법재판소만 퇴보한 걸까요? 우리단체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이란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이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하며 현재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 현재는 2년 반 만에 우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2년, 비슷한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5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육의원의 자격 제한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번 판결은 그때보다 오히려 퇴보한 결과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보다 전문성을 우선한다는 현재의 결정에 실망감을 금할 길 없지만, 교육의원제 폐지의 길, 우리 단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각종 폐해를 두고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성명] 온라인 경마허용 건의안, 안돼(9/25)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 그 와중에 코로나19를 빌미로 온라인 경마를 허용해 달라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도 온라인 경마허용을 촉구하는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이 기습적으로 상정되다시피 했는데, 이 사실을 확인한 우리 단체는 긴급 성명을 통해 건의안 부결을 촉구하였고, 해당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다행히 부결되었습니다. 청소년도박중독률 1위에, 경마공원까지 가까이 있



는 제주. 도박에 대한 경각심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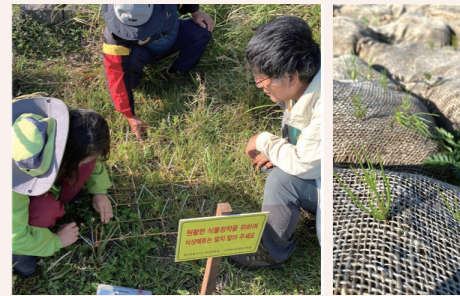
[한라생태길잡이] 관음사 모니터링(9/14)



태풍이 끝난 직후 길잡이 선생님들은 관음사 탐방로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탓인지 탐방로가 선명해 보였고 큰 피해도 없어 보였지만, 군데군데 웅한 느낌은 어쩔 수 없더군요. 까마귀배개랑 정금 열매도 맛보면서 이번 모니터링도 즐겁게 끝마쳤습니다. 길잡이 선생님들의 꾸준한 모니터링은 정말 멋져요~ 짱짱!!

[문화해설가모임 울레] 송악산 모니터링(10/5)

송악산은 훼손의 정도가 심해져 2015년부터 정산부에 한해 휴식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송악산 정상부의 복원정도를 살피고, 대안을 고민하는 우리 울레 쌤들. 10월엔 다리가 휘청할 정도의 거센 바람을 견디며 오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복구를 위



해 배치된 흙을 담은 주머니 위에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하기도 하고, 흙 주머니 추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울레 쌤들, 쌀쌀해지는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 제주의 水修秀(10/11, 10/18)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제주의 수수수'가 이제 실내수업 시연을 마치고 현장 수업 시연에 돌입했습니다. 교육생들은 각각 용천수, 지하수, 하수팀으로 나누어 실내와 현장 수업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고 실제로 수업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1일엔 용천수팀의 현장교육이 화북 고래물에서 진행되었는데, 용천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강의해주신 용천수팀 선생님들 덕분에 많은 배움과 즐거움이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10월 18일엔 만장굴에서 지하수팀의 현장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종 자료와 준비물을 준비하신 지하수팀 선생님들 ~ 진정한 제주물 지킴이이십니다!!

“머체왓 숲길, 같이 걸을래?”(10/10)

어느덧 하늘이 높고 말이 살피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날만큼 또 걷기 좋은 날이 있을까요? 이번 걷기에서는 아주 많은 활동을 했는데, 스트레칭, 솔방울 던지기, 나뭇가지로 중심 잡기, 나무 사이로 막대기 통과시키기 등 모든 활동이 재밌어서 기억에 남네요. 낙엽도 사각사각 밟고 스트레칭도 짝짝- 해주며 맘껏 가을 숲 냄새를 맡으며 즐거운 걷기를 하니 이리 기분이 좋을 수가!

